



유중재단 부녀회 감사장
Julian Dale의 Jamie
Sweeney 앞에서 포즈를
두는 정승우 이사장

유중재단 정승우 이사장 발견 기능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슈퍼코드의 다목적 지오테크에 오랜 시간 폭 넓혀왔다. 옷에서도, 건물에서도, 사무환경에서도 인재들 끌어들이길 수 있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하나의 곡이 갖는 다양한 효능을 알아내며 강한 포인드를 끌어내는 유중재단의 정승우 이사장. 2011년 발족, 지금까지 3년여의 짧은 시간동안 애초기를 위한 새로운 메가트렌드 감각을 지속시킨 중심이 있는 이사장. 유중재단의 미래를 한바탕 인축하자면 'Sunshine' 이었다.